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와라인천" 웹툰보기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



비매품/무료
47980
9 791168 702196
ISBN 979-11-6870-219-6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

인천광역시 | 인천연구원

지강민 작가의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



글·그림 | 지강민



지강민 작가의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



등장인물 소개



미르

이세계에서 인천으로 넘어온 마법소녀!
사고뭉치에 덜렁거리는 성격.
과연 인천에서 마물의 알을 모두 모으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재민

인천에서 쪽 살아온 토박이, 인천소년!
가끔 퍽퍽대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미르를 걱정한다.



페이퍼

미르와 함께
인천으로 넘어온
SI 마법책



재민아빠

재민의 아빠.
인천을 사랑하는 나머지
말이 너~무 많다.



재민엄마

재민의 엄마.
미르의 알 모으기를
응원한다.

목차



1화. 가자, 인천으로!	-----	06
2화. 만남	-----	14
3화. 걱정 안 해도 돼	-----	22
4화. 작가의 사심	-----	28
5화. 역사가 바뀔 뻔한	-----	34
6화. 드러난 진실	-----	40
7화. 재민의 목적	-----	46
8화. 1개만 더 있었어도	-----	52
9화. 보고 싶어	-----	58
10화. 남자친구	-----	66
11화. 그 마법을 쓰자	-----	72
12화. 살아있는 전설	-----	78
13화. 어르신의 사정	-----	84
14화. 마물의 알 구출작전	-----	90
15화. 글로벌 슈퍼스타	-----	96
16화. 대단한 사람	-----	102
17화. 새치기	-----	110
18화. 미르의 과거	-----	116
19화. 두근두근	-----	122
20화. 다가오는 위기	-----	128

21화. 수상한 남자	-----	134
22화. 지켜줄게	-----	140
23화. 레벨업	-----	146
24화. 붉은노을	-----	152
25화. 만반의 준비	-----	158
26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	164
27화. 재민의 고민	-----	170
28화. 고백	-----	176
29화. 위기의 순간	-----	182
30화. 에필로그	-----	188



이화

가자, 인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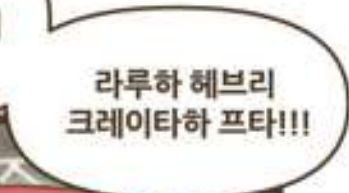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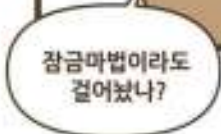


* 본 작품은 한국상업규정을 준수합니다.





* 마물 : 흔히 '사악한 괴물'을 일컫는 말.





그렇지~!
열렸다!

파악



까악!!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앗, 비어있잖아?

그럼 방금 전에
떨겨나갔던 것들이
실마...!?



헤이 페이퍼!
방금 내 주문.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줘!



스승님이
오기 전에
도망을...!!



헤이 케이피,
방금 앞들은 어디로
전송되었지?



인천이라는
이름의 이세계
입니다.

아냐, 이대로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일
이잖아.

내가 책임지고
압둘을 찾아와야 해!

좋아, 지금 당장
출발한다!

인천으로!

더 알아보기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 인천



▲ 송도국제도시 (출처: 인천관광공사)



▲ 인천대교 (출처: 인천관광공사)

300만 인구가 사는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또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All Ways INCHEON)'라는 도시슬로건*처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고 국제무역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통·물류의 중심도시죠. 게다가 개항장, 차이나타운과 같은 근현대의 역사·문화 관광지부터 마니산, 을왕리 해변 등 자연 관광지는 물론, 송도, 청라, 영종과 같은 국제도시도 만날 수 있어 매 순간 놀라움이 가득한 도시예요. 자, 이제부터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하나씩 만나기 위해 미르와 함께 떠나볼까요?

*도시슬로건: 도시의 특징이나 이미지를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



▲ 을왕리 해변 (출처: 인천관광공사)



▲ 월미도 관광특구 (출처: 인천관광공사)

02화 만남



아빠, 등산할 거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좀 유명한 데를 가든가 하지.

마니산이 뭐예요, 마니산이.



아니, 마니산이 어때서. 그 산들은 너무 넓고 높잖아.

강화도의 마니산은 높이도 472미터고 면적도 적당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등산하기 좋아 인기가 많아.

네-네- 인기 많아 좋겠네요.



근데 여긴 뭐지? 산 정상에 이상한 게 지어져 있네.

여기 이름이...



마니산의 참성단은 말야.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아~ 참성단 말이니?



아차...!!

아들!

엄마!



지금도 개천절 때면
제사를 올리고

전국체육대회할 때도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전국에 성화 봉송을...



후다닥

동향차!!

아들! 이제 어떡할 거야?
네 아빠 하산하는 내내
끝이 안 날텐데!



엄마! 잠깐 정제!
여기 좀 보세요!

아빠
똥어오잖아!
왜?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きゃ아아아악!

...그러니까



년 이세계의 마법사고
인천으로 날아 온
마물의 알들을
찾기 위해 왔다가

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배가 고파
쓰러져있던 거라고?



아... 학생은
그런 컨셉이군요,
우리 아들 컨셉은
불효자입니다.

아빠, 다
들리거든요!



걱정말아요,
학생.

경찰에 연락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요.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전 꼭 그 알들을
찾아야만 해요!



안 돼요!



보아하니 좋은 분들
같은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감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





더 알아보기

강화도의 마니산과 참성단



▲ 마니산 정상부와 참성단 (출처: 인천관광공사)

해발 472m의 마니산은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죠. 마니산 정상 인근에는 '참성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네모난 상단과 둥근 하단은 각각 땅과 하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참성단은 고려시대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왕이 제사를 지냈고, 조선시대 왕들도 하늘에 제사를 올린 역사적 장소입니다. 지금도 전국체전이나 대규모 체육행사는 참성단에서 성화 채화*를 통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 개천대제를 열어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채화 : 불을 언다.



▲ 개천대제 (출처: 인천시 강화군청)

03화

걱정 안 해도 돼





앗, 재민!
밖에 봐 봐!

지금 엄청 크고
예쁜 다리를
지나고 있어!



이 멋진 다리의
이름이 뭐야?

인천대교,
인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랄까.



웨이, 웨이퍼-
인천대교에 대해
알려줘.

응? 너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말씀이시죠?

!?

인천대교는
총길이 21.38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이며,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었습니다.

'바다 위의 하이웨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천대교는
사상교*추경간 길이가
800m로 이 또한
국내 최장이며,



초속 72m의 강풍과
진도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최첨단
교량입니다.

* 사상교 : 밑에서 버스들이 친 케이블로 구조물을 매단 다리



이렇게 멋진 다리가 있는
인천에 오게 되다니,
난 운도 참 좋아

아, 애는
페이퍼라고 해.

마법사 결에서
다방면으로 보조해주는
SI 마법책이야.



저기, 잠깐만!
지금 책이 말을
하고 있다고...!



헐, 너 진짜
마법사 맞구나!

그럼 혹시
파이어볼* 같은
마법도 할 수 있어?



* 파이어볼 : 불 속성과 강력한 공격 마법

당연하지.
보여줄까?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바다를
매워서 건설할
인천국제공항은

88개 항공사가
58개 국가,
189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연간 50만 회의 운항 및
최대 7,7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제4활주로를
추가하는 4단계 개발사업이
중요되면 연간 1억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억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보다 더
엄청난 곳이었잖아!

게다가 이세계 책이
나보다도 인천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이것도 참 대단하달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을
찾아야 해!

미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어? 진짜로 있네.....

한약 그 말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더라도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잘 안 가져가거든.

여지냈든 첫 번째 압회수 성공♡

더 알아보기

인천의 대표시설,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전경 (출처: 인천관광공사)



▲ 4단계 사업 이후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처: 《인천광역시사 3권》)

인천국제공항은 '인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1992년 건설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영종도는 서해의 작은 섬에 불과했기에, 이 주변의 바다를 매워 땅을 만들고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공항과 주변 시설을 세우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2001년 제1여객터미널에 이어 2018년에는 제2여객터미널을 개항하였고, 현재는 세계 공항 서비스 1위를 유지하는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영종도의 변화 과정 (출처: 《인천광역시사 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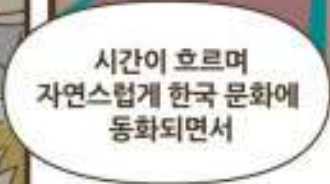


페이퍼 talk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인들에게 쉽고, 빠르고, 편리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공항협의회 선정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스카이트랙스 선정 세계 최고 환승공항상 7회 수상,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세계 최고 공항상 11회 수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전 세계 공항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고객 경험 인증제(Customer Experience Accreditation)에서 최고 단계인 Level 5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04화

작가의 사심





* 2011년 8월 31일부터 짜장면과 자장면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됨



한국인 입맛에 맞게 바꿔 팔아 오면서 어느덧 국민 음식이 되었거든.



너무 맛있어서
그만... 해해



짜장면과 짬뽕은
이세계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구나..

응??

그렇다면...
날 따라와!



이건 풀면이야!



굵고 쫄깃한 면발에
매콤새콤한 양념이
아주 일품이지!

이것도 인천이 원조인데
재면소에서 실수로 면발을
굵게 뽑는 바람에 탄생했다.



매워! 근데
맛있어!!

그리고
이 동네까지 왔으면
신포시장 닭강정도
먹어봐야 해!



이건 인천
최초 음식은
아니지만

인천 토박이 작가의
최애 닭강정이라
사실으로 그냥
소개하는 거래!



이것도 엄청
맛있다!



(출처: 인천시 블로그)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다가
인천에서 나왔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

헤헤 그럴 수도
있지-!



인천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탄생시킨 멋진 곳
이구나!

이런 인천에
살고 있다니,
재민! 난 네가
너무 부러워!

하하... 뭘...
부러울 것 따지야...



아, 재민아,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그러게
나도 덕분에 맛있게
먹은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재민?

똥을 싸다 만 것처럼
왜 이렇게 똥가
뽀뽀하지?

에이, 기분탓이야.
기분탓-!



더 알아보기

인천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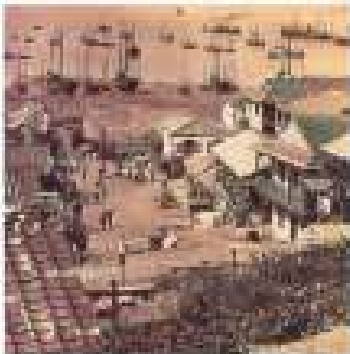


▲ 인천 차이나타운 입구 (출처: 인천시 중구청)



▲ 인천 개항장 전경 (출처: 인천관광공사)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중국인들이 모여 살던 '청국 조계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계지는 '어느 한 나라가 그 땅의 일부에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을 허가한 땅'이란 뜻입니다. 인천 중구 개항장 거리에는 차이나타운 외에도 다른 나라의 조계지가 있었는데, 바로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 맞은편에는 일본의 조계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주거 양식과 문화 축제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동네가 되었는데, 이런 게 인천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에서 바라본 인천항
(출처: 《사진으로 보는 인천사 1권》)



페이퍼 talk “짜장면 박물관”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짜장면 박물관은 국내 최초 짜장 테마 박물관으로, 국민음식 짜장면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처음 짜장면을 판매하였던 옛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개관하였습니다. 한편, 짜장면 박물관 주변에는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 박물관, 한중문화관, 대불호텔 전시관 (중구생활사전시관)이 있어 '인천 개항장 5대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는데, 5개관 통합관람 시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05화

역사가 바뀔 뻔한





*1896년 김구가 황해도 치하포에서 '국모의 완수를 갖기 위해' 일본인을 살해한 일



네, 김구의 백범일지에 실린 유명한 일화 말씀이시죠?



응? 우리 안 물어봤는데...

김구의 사형집행은 1896년, 서울-인천 간 시외전화 개통은 2년 뒤인 1898년으로,



전문가들은 전화가 아닌 전보로 연락했을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김구의 착오를 당시 사형집행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던



김구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뭐 인천항 재판소에서 김구 선생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사실이니까



맞아, 맞아.

...그런데 말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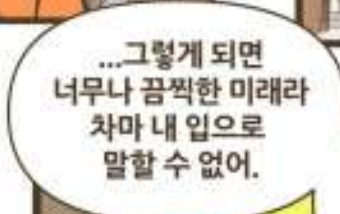


김구가 누구임?

아....

고종은 또 누구...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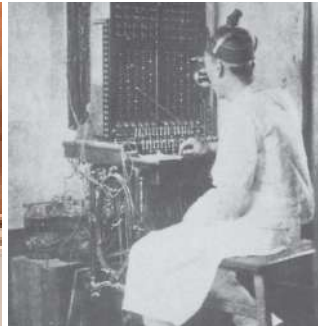
최초의 공중전화와 전화교환원



▲ 덕률풍
(출처: 인천관광공사 공식블로그)



▲ 초기 자석식 전화기
(출처: 인천시청)



▲ 초기 전화교환원 모습
(출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는 영어 ‘텔레폰(telephone)’의 발음을 한자식으로 표현해 ‘덕률풍’이라고 불렸습니다. 전화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902년 인천에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소가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만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에 시내 공중전화가 추가로 설치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쓸 수 있게 되었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번호를 누르면 받는 사람에게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었고, ‘전화교환원’이라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전화선을 연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페이퍼 talk “치하포 사건”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당한 을미사변으로 인해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이 커지던 중 1896년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스무 살의 청년 김창수가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일본인을 살해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치하포 사건’이며, 김창수는 김구 선생님의 청년 시절 이름입니다. 당시 김구 선생님은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를 담당하던 인천항 재판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06화

드러난 진실



* 깃대종 : 생태계의 풀줄 중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

그리고 한국 도심에서
저어새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번식지는



(출처: 인천시 블로그)

바로 이곳
인천 남동유수지의
인공섬, 저어새섬
입니다.

애는 이게
몰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알려주네 ㅋㅋ

그것이 시
인공저어새섬이니까.



그런데 저어새섬 위에
새들이 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인다.

습지라 건너갈
수도 없고...

미르! 생태학습관에서
저어새를 볼 수 있게
쌍안경을 빌려준대!

정말?



잠시만-



우와! 신기하다!
역시 마법의 도시,
인천이야!

저어새도
알아보잖아!

ㅋㅋㅋ

앗! 마물의 알 발견!
저기 저어새섬에
있어!

뭐라고?!



저어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동시에
넣어두었나 보네...



저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지?

잠깐, 그것보다
마물의 알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며?!

저러다 만약
저어새가 알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맞아, 그래서
서둘러야 해!



로에 부르하 줘스 마하시!

뭐야? 너 지금
뭐하는 건데?!



멀리 있는 물체나
생물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마법입니다.

그렇지! 이번에도
수월하게 득템 성공~!



미리 뒤를 봐!

응?





* 저어새의 알은 훔치거나 먹으면 처벌받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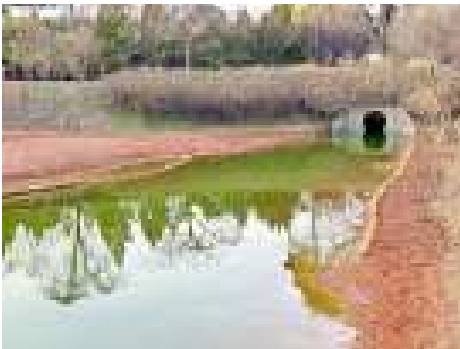
또 다른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 금개구리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인천의 대표적인 5대 깃대종 중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동물입니다. 금개구리는 몸이 전체적으로 밝은 초록색을 띠며 등 쪽에 2개의 금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인천에서는 주로 계양구나 강화도 등의 대규모 경작지대에 서식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논과 습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도시의 개발로 인해 금개구리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멸종위기종으로까지 지정되게 되었죠. 금개구리를 비롯한 인천시 깃대종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학습과 깃대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고, 서식지 보호 및 대체 서식지 마련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종 : 한국에만 분포하는 생물종



▲ 금개구리 서식지인 부평구 부들공원 (출처: 인천시 블로그)

▲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안내사인물 (출처: 인천시 블로그)



페이퍼 talk “깃대종”

깃대종이란 지역의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생물종으로, 지역 생태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뜻합니다. 인천시의 5대 깃대종은 저어새, 대청부채, 흰발농게, 금개구리, 점박이물범입니다. 그중 특별히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남동구에 위치한 저어새 생태학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에서는 조류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어새 섬 등지 정비, 저어새 환경·생일·환송 잔치 등 흥미로운 활동도 제공합니다.

07화

재민의 목적



한 번은 꼭 와 보고 싶었다가 드디어 도착했는데







진짜? 이 곳에서는
금화가 그렇게나
비싸다고??

아하-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만-

저, 저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이미 간파당해 있다



그런데 재민,
나중에 그 금화들로
팔 사고 싶었던 거야?

그게... 하이패드
프로 512기가
LTE...



알았어! 재민!
알 모으는 걸
도와만 준다면
내 금화도 주고

하이패드?
그것도
선물해줄게!



정말? 나도
최선을 다 할게!

좋아.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하고
다시 열심히
알을 찾는 거다?

음!



그런데 미르,
이 경기장 엄청 큰데...
여기서 어떻게 찾지?



네, 인천축구전용 경기장 말씀이시죠?

에 봐, 또 또 안 물어봤는데 혼자 설명하기 시작한다.

한국 최초의 공설운동장은 1920년 현재 제물포고 자리에 개설한 웃터골 공설운동장으로

많은 체육대회 및 운동경기들이 열리면서 인천 근대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웃터골 공설운동장 부지에 인천부립중학교가 세워지면서, 1936년 송의동에 인천공설운동장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인천시청)

전국체전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경기과 행사를 개최하던 송의동 인천공설운동장은



(출처: 인천시청)

2012년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다시 태어나 인천 축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인하여 한국 최초였더니,

백서 최초의 도시, 인천이야?

그리개 나도 몰랐어.



그런데 알은 이마도 경기장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지?

응?



!?



더 알아보기

인천문학경기장



▲ 인천문학경기장 전경 (출처: 인천시청)



▲ 인천문학경기장 야경 (출처: 인천시설공단)

인천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팀들의 연고지*인 도시인데요, 이중 축구만큼이나 인천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종목으로 야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야구단 'SSG 랜더스'의 홈구장인 '인천SSG랜더스필드'는 인천문학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에는 야구장 외에도,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문학박태환수영장, 풋살구장, 인공암벽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인천시민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운동팀이나 어떤 단체의 본부 또는 중심이 되는 장소나 도시



▲ 인천 SSG랜더스필드 (출처: 인천시 블로그)



페이퍼 talk “웃터골 운동장”

웃터골 운동장에서는 인천 청년들로 구성된 한용단 야구단과 일본팀 사이에 야구 경기가 자주 열렸는데, 한용단을 응원하는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08화

17개만 더 있었어도







무학대사의 보고를 들은 이성계는 바로 부평을 방문하였고



당시 수도를 선정할 땐 주변에 100개의 골짜기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직접 세어보니

하필이면 딱 1개가 모자란 99개라서,

눈물을 머금고 새 수도의 선정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무학대사는 "골짜기 하나가 모자란 게 너무도 원통하다"고 하여



지금 서있는 언덕이 원통이고개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헐.. 그 말은 만약 그때 부평에 골짜기가 1개만 더 있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부평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대박...!



더 알아보기

경인아라뱃길



▲ 서구 경인아라뱃길 (출처: 인천관광공사)

부평 원통이고개를 거쳐 인천 해안과 굴포천을 이으려는 시도는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굴포천을 통해 바닷길과 한강을 잇는 뱃길이 생기면 한양으로 조운선*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험한 강물과 암석들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여러 차례 좌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다 1995년부터 홍수 예방과 대량수송로 확보를 위해 운하** 건설이 다시 시작되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2012년에 현재의 경인아라뱃길이 완성되었죠. 현재는 인천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과 요트 등 다양한 수상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찾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운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곡물을 운반하던 선박

**운하: 땅을 파서 만든 뱃길



▲ 경인아라뱃길 유람선과 수상체험 (출처: 인천관광공사)



페이퍼 talk “원통이고개”

원통이고개와 관련된 또 다른 전설에 대하여..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거둔 쌀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하여 운하를 파려다가 부평에 있는 단단한 바위산에 막혀 더 이상 파지 못하게 되어 원통하다고 하여 원통이고개로 불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09화

보고 싶어



답동 성 바오로 성당은
인천 최초의 성당으로,



인천 천주교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하였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고딕·양식으로
지어졌다가



1937년 붉은
벽돌 외관과
로마네스크 양식
으로 개축
하였습니다.

답동성당의 상징인
3개의 종탑에 달린 종은
1900년대에 설치되어



매일 정해진 시각에
울리며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 고딕 양식: 직선적이고 뾰족한 첨탑이 특징인 건축양식
• 로마네스크 양식: 아치, 둥근 돌이 특징인 건축양식
(출처: 《한국 최초 인천 회고 100선》)

6·25전쟁으로
건물의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었지만



(출처: 인천서 블로그)

와.. 보기 보다
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었구나.



저기..

오랜 시간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어 왔습니다.









응? 혼자 멋대로
오해한 건
재민이잖아.

됐다. 됐어.
괜한 걱정했던
내가 바보지!

어, 재민..
빠친 거야?

^앗
아니거든?!

빠졌네.
빠친 거
맞네~♪

^앗
글쎄,
아니라니까~!



더 알아보기

답동성당과 천주교의 역사



▲ 답동성당 전경 (출처: 인천관광공사)



▲ 답동성당 내부 (출처: 인천관광공사)



▲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 (출처: 인천시 블로그)

인천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에서 무척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인천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해왔고, 천주교도 인천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죠. 답동성당 옆에는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인천의 천주교 역사는 물론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한국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등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의 일대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페이퍼 talk “답동성당”

19세기 말 외국 무역의 거점이었던 제물포에 세워진 답동성당은 인천광역시 최초의 가톨릭 건축물이자 우리나라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인천시와 중구가 추진하는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에 따라, 답동성당 일대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10화

남자친구



네, 한국 최초의 지방 우체국인 '인천우체국' 말씀이시죠?



자, 잠깐 스톱!! 이번 화는 이미 끝났다고!

1884년 근대식 우편 업무를 위해 한성에는 우정총국을, 인천에는 인천분국을 설치하였고



(출처: 국가유산청)

갑신정변으로 잠시 폐쇄된 이후, 1895년 '인천우체사'라는 이름으로 부활에 성공하지만

1905년 일본의 인천우편국에 흡수되어 1923년 지금의 모습으로 이전 건축되었고,



1949년이 되어서야 인천우체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지방 우체국도 인천이었다니, 아재 놀람지도 않은.

역시 인천은 최초의 도시니까!



어? 그런데 물어 달혀있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체국 어전 안내?



건물 안전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라,

아쉽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러게...
몇 년만 빨리
알았어도...!

저기, 미르.
여기 오니까
생각난 건데



고향에 편지를
써 보는 건 어때?

편지?

이세계에 계신
미르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아님 고향에
있는 친구도
좋고

그건 걱정하지 마.
여기 우체통에
넣으면 되니까.

네가 계속
말한 대로

하지만 어떻게 보내?
인천과 내 고향
그랑드나는

물리적으로도
서버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다 썼다! 해해

뭔 할 말이 많은지
오래도 걸리네.



자, 이제
우체통에 넣고~



부디 편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부탁드려요!

그런데
누구한테 썼어?
부모님? 친구?



남자친구!

뭐? 남자친구가...
있었어?? 진짜?

그럼 내 미모에
없을 줄 알았어?



ㅇㅇ.
딱 봐도.

제길, 분하다!
진짜로 없어서
반박할 수가 없네
ㅍㅍㅍㅍ

ㅋㅋㅋ
그럴 줄 알았음.

더 알아보기

최초의 지방우체국과 우편배달원



▲ 1923년도 인천우체국 (출처: 인천시청)



▲ 개항기 근대 건축물인 구 인천우체국 (출처: 《인천광역시사 3권》)



▲ 초기 우편배달원 (출처: 인천시청)



▲ 1990년대 우편배달원을 묘사한 그림엽서 (출처: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 1권》)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우체국은 인천에 있었죠. 우체국이 처음 생겼을 당시 우표를 붙여 지역 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우체부가 있었을까요? 네, 당시에도 '우편배달원'으로 불리는 우체부가 있었어요. 우편배달원이 되는 일은 무척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읽고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과 한문을 모두 읽을 줄 알아야 했고,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루 8시간씩 걸어야 했거든요.

11화



그 마법을 쓰자



출근시간대라 그런지 도로에 차가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에 편하게 가고 있잖아요.

많이 바쁘실 텐데, 감사해요.



아니다. 여차피 가는 방향도 같고, 그렇게 알려주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구나.



내 아를 놓은 몇 년을 데려다 줘도 고맙단 말 한 번을 안 하거든.

아버지 아들은 불요자 컨셉 아니까요.



아...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크레이드 로보라바 제이시!

잠깐! 스톱!! 멍해!



네 발급 그거 무슨 주문이었어?

공공부양법, 이 차를 공중에 뜨게 해서 빨리 날아가려고.

* 2화 참고



미르, 내가 전에도 말했지!

지금 이렇게 많은 차들 속에서 우리 차가 하늘을 날면 네 정체가 들리게 되고

그럼 널 알을 찾기 엄청 힘들어질 거라고!

제발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아... 미안...



재민아, 그만 하거라.

미르는 우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걸거다.



.....

이래 보여도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였다.

1967년에 착공해서 1968년에 서울 양평동 - 인천 가좌 나들목 구간이 우선 개통되었지.



네? 좋아요!

길도 막히는데 기본도 전환할 겸 아저씨가 재밌는 예기 하나 해줄까?

어? 자, 잠깐...!



안 돼...!!

이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이 넘는
인천-서울간 이동시간을



(출처: 인천시청)

전국 1일 생활권을
구축하는 서막이
되어준 의미있는
길이지.

지금처럼 출퇴근
시간만 아니면
충분히 다닐만
하기도 하고.



무려 18분대로
단축시켜 주었고



우와... 역시
인천은 최초의

게다가
지금 인천시가
추진 중인 게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화
프로젝트!



지상의 자동차도로는
지하로 바꾸고 지상은 시민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멋진 계획이지!



메로, 아까
그 마법 지금
쓰지!

뭐? 아까는
쓰지 말라며?

우리가 살려면
빨리 도착해야 해!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인들의
오랜 열원이었거든?



어번에야 말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또...

!?



처음 오면 반드시 길을 잃곤 해서 유명해진 곳이라구.





더 알아보기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공사 조감도 (출처: 인천시청)



▲ 경인고속도로 개통 직후 전경
(출처: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 2권》)



▲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현재 모습
(출처: 《인천광역시사 3권》)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인천항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철도가 담당했던 여객과 화물 수송의 상당 부분이 고속도로로 이전되었고, 인천 광역도시권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발전의 측면에서도 경인고속도로가 한국 도로망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 물류: 필요한 양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냄으로써 가치를 만드는 경제활동

** 초석: 어떠한 사물의 기초

12화

살아있는 전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럴 거야?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라고!

그래, 한 번은 스스로 깨달고 반성할 시간을 가져야 해!



그게 바로 지금인 거야!

길을 잃고 무서워서 혼자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 하지만

* 재민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계다가 귀엽고 예쁘니까 혹시 납치라도 당하면...!



미르는 인전이 처음여잖아.

여기에 아는 사람도 나랑 엄청 배곤 없고...









돌아와 줘서.

실은 이곳에 혼자 남겨지니까 살짝 무서웠거든.



...고맙긴, 얼른 가자.



근데 여기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 길을 전혀 모르겠어...

당연하지!

여긴 단일면적에 최다 점포수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니까.



무려 가게가 1,480개나 모여 있거든!



게다가 간신히 출구를 찾는다 해도

출구가 무려 33개나 되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지!

아저씨는 누구... 세요?



내 이름은 알 필요없다.

그냥 부평지하상가의 살아있는 전설... 정도로 해두지.



진짜로 인천사람도 종종 헛갈림

더 알아보기

동인천 지하도상가



▲ 1971년 새인천지하상가 준공
(출처: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 2권》)



▲ 1967년 동인천지하도 준공
(출처: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 2권》)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지하도상가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무려 15곳이 있죠. 그중 인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지하도상가는 ‘동인천지하도상가’인데요, 건설 시기로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도상가인 ‘새서울지하상가’보다 4년 앞섰다고 합니다. 동인천지하도상가는 1963년 2월 15일 첫 삼을 떠서 같은 해 11월 20일에 지하도가 먼저 완성됐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며 인천시가 중재한 합의에 따라 8년 후인 1974년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해요. 현재 동인천 지하도상가는 인현 지하도상가와 신평 지하도상가 등 5개의 상가에 총 750여 개의 상점이 운영 중인 대규모 쇼핑센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 개통 초기의 동인천 지하도상가 (출처: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페이퍼 talk “부평모두물”

부평모두물(구 부평역 지하상가)은 1,480여 개의 점포와 33개의 출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로서, 한때 ‘인천 최대 지하던전’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4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진 길 안내 표시는 물론 네이버맵 및 카카오맵의 길찾기 서비스가 도입되어 길을 잃지 않고 쉽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부평모두물은 풍부한 쇼핑 거리와 즐길 거리, 그리고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인천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화

어르신들의 사정



유, 드디어 지하실가에서 탈출 성공!



거 봐, 나만 믿고 따라오랬지?

응, 정말 탈출에 성공했네.



2.시간.만에...

흥...! 흥...!



어? 재민! 이게 뭐야? 여기에도 든금없이 묘비가 있어.

묘비? 여긴 공장지대인데?

이 비석은 1907년 조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기념비입니다.



아, 저번의 인천우체국 처럼?



1907년 바닷물을
가둔 뒤 햇빛에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염전을



(출처: 인천시 블로그)

인천 주안에서
최초로 만들었지.

참고로 1907년
주안면 심정리에
'천일염염시험장'을
만들어



천일염을 만드는 데
적절한지 시험해
보기도 했어.

천일염염도
인천이
최초였군요.



우와, 역시
최초의 도시,
인천!

이 시험장에서 만든
천일염이 훌륭해서
염전 면적을 확장하여
주안염전을 형성했고.



인근에서 일하는
염부들의 마을까지
들어서게 만들었다구.

이렇게 주안염전의
성공으로 남동염전,
군자염전, 소래염전 등
인천에 수많은 염전이
속조되었지.



(출처: 인천시 피추읍구청)

마을까지 만들고
다른 염전들까지
속조시켰을 정도면



당시 주안염전의
위업이 장난
아니였겠는데?

응, 맞아~!



마차가 많이
투기워보이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이구, 고미워.
예쁜 학생이
آمد 예쁘네!



응?

미르! 마부의
아이야!



어, 친씨네!

그거 아는 물건이야?
매일 전에 길에서 주워거든.
필요하면 학생들 가져 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앗, 미르,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이 말...



주안영전어었던
곳에서 발견해서
그런지 판매했어
나네요!

학생...



얼른 가서 물로 입 행궤!
그거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야!



네에?!

고생을 사서 하는 그녀였어요

더 알아보기

인천의 또 다른 염전, 소래염전



▲ 옛 소래염전의 모습 (출처: 인천시청)



▲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 (출처: 문화재청)



▲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경 (출처: 인천관광공사)



▲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출처: 인천시청)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인 인천 주안염전이 만들어졌는데요, 천일염전은 바닷물을 가둔 뒤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화약 재료로 쓰기 위해 소금을 수탈해 갔던 아픈 역사도 깃들어 있습니다. 주안염전과 함께 전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던 인천의 소래염전도 광복 후 산업화가 진행되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후 소래염전 일대는 다시 갯벌이 생성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게 되어 지금의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지요. 한때의 아픈 역사가 만들어 낸 장소를 자연이 어루만져 지금에 이른 모습도 인천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장면이 아닐까요?

14화

마물의 알 구출작전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교착상태에 있었기에



전쟁을 반전시켜야 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인천 해안 3군데로 동시에
상륙하여 북한군을
혼란시키면서



(출처: 인천시 블로그)

그 사이 북한의 군사시설과
인천항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고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고



북한군을 압록강
근처까지 밀어내면서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 방금 우리가 했던
일을 되찾는데 썼던
바로 그 작전이잖아!

응, 그렇지.



개가 지키고 있던
저곳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 등대로,



6-25 당시 저 등대가
안내해 준 덕분에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

물론 실제 등대는
인천 중구의 팔미도라는
섬에 있고 저건 영화
인천상륙작전 촬영을 위해
제작한 모형이지만...



그렇구나!



더 알아보기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원주민의 희생



▲ 레드비치에 도착한 연합군 상륙함 (출처: 《인천전쟁사 下권》)



▲ 인천상륙작전 (출처: 인천시청)

6·25전쟁의 3대 전투로 다부동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를 꼽는데요,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며,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폭격으로 인해 월미도 원주민 100여 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는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추모'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9월 15일이 되면, 인천시민으로서 이분들의 희생을 함께 추모하면 어떨까요?

*판도: 어떤 행동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다



▲ 연합군의 포격으로 불길에 휩싸인 월미도 (출처: 《인천전쟁사 下권》)



▲ 2021년 세워진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 (출처: 《인천전쟁사 下권》)



페이퍼 talk “팔미도 등대”

인천상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팔미도 등대는 1903년 6월에 한국 최초로 점등된 근대식 등대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길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이 팔미도 등대가 있는 작은 섬 팔미도는, 사주(沙洲)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마치 한자 8(八)과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인천 8경의 하나로 꼽히는 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2009년부터 유람선을 타고 방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등대스탬프투어>에서 아름다운 등대 15곳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재민! 이쪽으로 가면 돼!



어? 여기는...

왜, 아는 길이야?



그게...

류현진 야구거리?
류현진이 누구야?

류현진 선수는 우리나라 야구선수인데 전세계적으로 유명해.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내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슈퍼스타지.



(출처: 인천시 블로그)



야구? 메이저리그? 뭐, 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왜 길거리에 그 사람 그림이랑 물건들이 놓여져 있어?



이쪽으로 가다 보면 류현진 선수가 다니던 동산중학교랑 동산고등학교가 있거든.

참고로 최지민 선수도 야구 명문인 동산고등학교 출신이지.

그래서 류현진 선수와 모교를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류현진의 야구거리라며 꾸며놓은 거지.



(출처 인천시 블로그)

그렇구나~ 근데 나 이 사람 왠지 낯이 익어.



어디서 봤더라..

생각났다! 저번에 너튜브에서 우연히 봤어.



류현진, 같은 노래만 계속 부르던데!

영어가 안 되면~

아하, 노래를 잘 불러서 유명해진 거구나!



류현진은 야구선수거든? 그 많은 경기영상들 놔두고 왜 하필 광고만 본거야.

그게 현재의 CF인데



광고가 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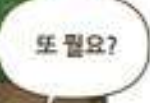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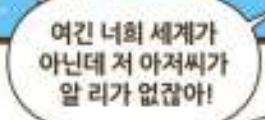
음..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보고 사고 싶게 만들도록 널리 알리는 거잖아.

내 물건이면 내가 알려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그거야 유명한 사람이 하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





1886년 한성주보에
세창양행* 고백을
실었는데



아, 여기서 고백은
광고의 옛 표현이야.

쇠가죽, 말가죽, 개가죽 등을
사들이고 자명종 시계,
서양바늘, 유리 등을



(출처: 인천시 블로그)

외국에서 들여다가
팔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 세창양행 : 독일인들이 재일본에 설립한 무역회사
(출처: 《한국 최초 인천 조교 100선》)



어린 아이나 노인에게도
가격을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팔겠다는
말 그대로 "고백"인 셈이지.

어때, 정말
남안락하지
않나?

..근데
얘네들은 왜 자꾸
사러지는 거야?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재민!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저 아저씨 좋은 분
같은데-

미르,
저 아저씨
아무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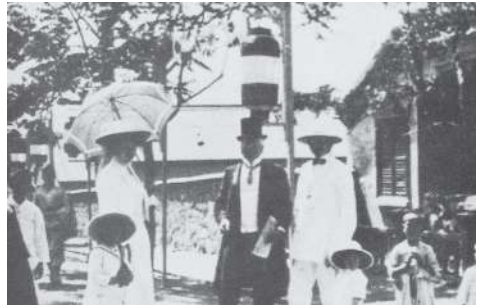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서양의 무역회사, 세창양행



▲ 세창양행 사옥 (출처: 인천시청)



▲ 세창양행 주인 마이어와 지배인 볼터 (출처: 인천시청)



◀ 1897년 독립신문에 실린 세창양행 광고 (출처: 《인천광역시사 2권》)

한국 최초의 근대적 상업광고를 한 세창양행은, 독일의 '마이어 상사'라는 회사가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1884년 인천 제물포에 세운 무역회사 지점입니다. 세창양행의 광고는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에 실렸는데요, 이때 세창양행의 물건이 많이 알려지며 상업광고에 대한 개념이 널리 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세창양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외교적 압력도 행사하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였고,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페이퍼 talk “세창양행 고백”

세창양행은 1884년 6월 독일 마이어 상사의 제물포 지점으로 설립된 무역상사로, 조선의 곡물을 수출하고, 영국산 면제품을 비롯한 서양 제품들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수입품 중 값고 견고한 '세창바늘'은 당시 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학질(말라리아) 치료제인 '금계랍'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창양행은 두 개의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1884년 각국공원(현 자유공원)에 지은 직원 숙소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주택이며, 1886년 《한성주보》에 실린 '덕상 세창양행 고백'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상업광고입니다.

16화

대단한 사람



미르가 건 마법 덕분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기념비



그런데
3·1운동이
뭐야?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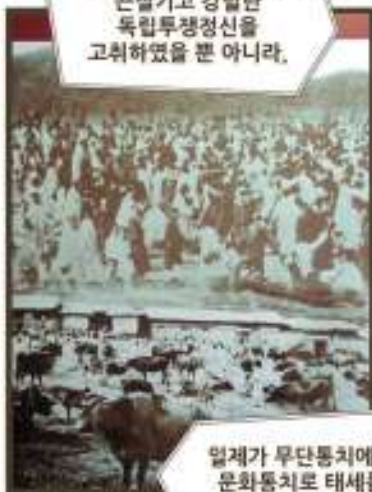
전국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전개된 3·1운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출처: 인천시 블로그)

중국 상하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끈질기고 강렬한
독립투쟁정신을
고취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 인천시 블로그)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태세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해, 싸우지 않는
비평화적 시위라니,



그런 대단한 운동을
인천에선 바로 이 학교에서
시작했다는 거지?

네. 소식이 늦었던 인천에서는
3월 6일 이곳 인천공립보통학교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
수십 명이 거리로 나아가
만세운동을 시작했고



일본 경찰이 학교 측에
학생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할 것을
알아챈 학생들이

학교의 전화선을 잘라
이를 막으며 '동맹휴업'이라는
형태로 항일 의지를 다졌습니다.

휴업에 들어간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인천공립상업학교*와
합세하여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후 인천 전역으로
만세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 인천공립상업학교 : 현 인천고등학교
(출처: 인천시 블로그)

우와, 재민! 정말
훌륭한 학교를
다녔었구나!

대단해!





위기에 빠진
한 세계를 구하는,
훌륭한 일을 하는
중이니까

지금도
넌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미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한데...

그랜드나를 위기에
빠트린 건 바로 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함께
수습 중인 거고.

앗! 알 찾았다!
마침 여기에
딱 알이 있었네!

화제를 돌리기 바쁜 그녀였어요

더 알아보기

향교와 서원



▲ 인천향교 (출처: 인천관광공사)



▲ 강화향교 (출처: 인천관광공사)

인천은 창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영화학당, 인명학교 등 근대교육기관의 역사가 깊은 곳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을까요? 먼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 교육을 담당했던 '향교'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인천향교, 부평향교, 교동향교, 강화향교가 있었습니다. 그중 교동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교가 국가에서 설립한 공립 교육기관이었다면, 사립 교육기관으로는 '서원'이 있는데요, 인천에는 문학산 기슭에 위치했던 학산서원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학산서원은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인천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오늘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인천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1950년대 학산서원터 표시석 (출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 18세기 후반 광역도 속 학산서원



페이퍼 talk “인천공립보통학교”

인천공립보통학교는 창영초등학교의 옛날 이름으로, 인천 지역 3·1운동의 발상지로서 1924년 벽돌로 지은 옛 교사 건물이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영초등학교 개교기념일이 인천 공립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빠른 1896년 1월 22일로 인정받아 한국인 자녀를 위한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가 되었습니다.



어? 고양이다!



재민,
이 고양이
너무 귀엽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냐.



알이 여기에
있는 거 맞아?

여긴 홍예문이라고
꽤 유명해서
나도 잘 하는데
이 터널이 전부거든.



해해 귀여워~!

피요,
내 발 들고는
있는 거야?;

야옹~!
야옹...!



야옹이가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해이
페이퍼!



고양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통역해 줘?

뭐? 페이퍼에
그런 기능도
있어??



여긴 홍예문.
무지개문이라는
뜻이다냥.

헉, 이게 되네?!

이 터널은 1908년
일본인들이 만들면서
혈문*이라 불렀는데

자신들의 터전을 확장하고
물자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유공원 산줄기에 구멍을 뚫어
문을 냈기 때문이다냥.



*혈문 : 구멍문
(출처: 인천시향)



자, 잠깐! 끈금없이 왜
고양이가 홍예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템플 제복부터가
마법의 세계니까
그냥 넘어가라냥.

홍예문을 지을 때
설계는 일본인들이
했지만

공사는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냥.



내 주인의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공사할 때 생긴 지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냥..



주인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나를 만나면서 웃음을
되찾았다냥.







만약 가져간 사람이 알을 먹었다면 정말 큰일이야!



*마나 :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

더 알아보기

홍예문



▲ 홍예문 (출처: 인천시 중구청)

인천의 홍예문은 아치형 돌문과 건축양식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인데,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와 영화 배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클래식',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등이 있어요. 그리고 홍예문을 중심으로 예쁜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근처에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등 함께 즐길 거리도 다양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홍예문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고 해요. 당시 극장에서 상영하던 영화 홍보를 위해 영화 간판을 홍예문에 걸 정도였죠. 이렇듯 인천의 홍예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1950년대 홍예문 모습
(출처: 《인천광역시사 7권》)



▲ 1958년 홍예문에 걸린 영화 간판
(출처: 굿모닝 인천 <즐업앨범 속 인천 이야기> 유동현 저)



페이퍼 talk “홍예문 건축의 역사”

무지개라는 뜻을 가진 홍예문은 제물포항에서 경인철도 축현역(현재 동인천역) 쪽을 관통하는 문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물자 수송 편의를 위해 만든 돌문입니다. 공사 중 조선인 노동자들이 희생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홍예문이지만, 당시 토목공법과 재료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은 입구 양쪽 돌벽을 뒤덮은 담쟁이덩굴과 홍예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카페거리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인천시 대표 축조물 중 하나입니다.

18화

미르의 과거



전에 왔을 때
함께 들렀으면
좋았을걸-



재민, 혹시
인천에 살면서

마법 쓰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적
있어?

없어,
단 한 번도.

그럼 안심해.

재민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도 순간 여길
그렇드나로 착각해서
잠시 흥분했었나 봐.



찾았다!



근데 이 건물은
엄청 오래되어
보이네.

여기도 뭔가
역사가 있는
곳인가?

하이, 하이피-



...네, 인천 최초로
조선인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였던 명화학당
말씀이시죠?

인천 중구 내동에는
한국 최초로 감리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진 감리교
내리교회가 있는데



이 내리교회의 2대 목사인
존스 목사와 그의 부인
행결 선교사에 의해



※ 명필선교사

1982년 내리교회 안에
명화학당이 설립되었고,
1911년 지금 눈앞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개항 초기에
외래 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배타적인
인식과 더불어

서양 사람들은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
동조림으로 만들어
본국에 보낸다거나



여 두눈으로
복복히
말어유!

시루에 넣고
찌 먹는다는 등의
유언비어 때문에
학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헐... 옛날에도
가짜 뉴스가
존재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모집하고 가르친 결과,



한국 최초로 사범교육을
실시한 김애마, 한국 최초의
여성 음악 교육가 김영의.





하긴 부모님은 우리가
아무리 커도 마기로만
보시니 설득하기
쉽지 않지.

미르야 어떻게
부모님 설득에
성공했어?



각서를 쓰고
겨우 허락을
받았지.

각서...? 무슨
내용이었는데?

"앞으로는 꼭 신중하게 마법을 써서
집이나 마을을 함부로 박살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대체 얼마나 박살을 냈길래...



미르,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시간
다 됐어.

응! 나도
엄청 배고파!

근데 홍예문에서
찾은 알 껍질,
안 챙겨도 괜찮아?

응. 껍데기는
필요 없어.

더 알아보기

성공회 내동교회와 강화성당



▲ 대한성공회 내동교회 (출처: 인천관광공사)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가 '인천 내리교회'라면, 최초의 성공회 교회는 '인천 내동교회'입니다.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따르는 교회로, 내동교회는 인천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온 코프 주교(한국어를 고요한)에 의해 1891년에 지어졌습니다. 미국 출신 내과의사였던 랜디스 박사는 인천 최초의 서양 병원 '성누가병원'을 지어 의료선교를 했는데, 그는 '약을 주는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약대인'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았고, 병원이 있던 인천 내동은 '약대인 언덕'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한편, 고요한 주교는 강화도에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을 건축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한옥 성당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강화성당은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과 동양의 불교사찰 양식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바실리카 양식: 고대 로마의 법정 건물에서 유래한 특수한 건축 양식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출처: 인천관광공사)



페이퍼 talk “인천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는 배재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 한국 개신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 중 하나로써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도 불리며, 한국 최초의 근대식 초등학교인 영화학교를 설립하고 한국 최초로 풍금을 들여와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한국 최초’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902년 첫 번째 하와이 이민선이 떠날 때 이민단 121명 중 50명이 내리교회 교인이었을 만큼 하와이 이민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평광 귀광 평



...그러고 보니 여자랑 단둘이 영화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잖아...!

두근

두근



뭐지, 오늘따라 미르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두근

두근

두근

좋은 향기도 나고...

어,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두근

안 되겠다!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설마 내 손과 미르의 손이 닿았...?!

팝콘이라도 먹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자...!

폭

멈

어라? 이 느낌은?!



미르, 넌 왜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실마 너도
날...?

두근

두근

두근

그런데 미르의
손이 보기보다
많이 거칠구나.
딱딱하고...

두근

두근

두근

응? 딱딱...?

!?

두근

당

정말 대단해, 재민!
영화 보다가
알도 찾고!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별로
안 기뻐 보여.

아, 아무것도
아냐...

두근

두근

더 알아보기

인천의 시네마거리



▲ 애관극장 (출처: 인천시 중구청)

인천의 경동과 동인천 일대는 다양한 극단과 예술단체들이 모여 문화예술활동을 벌인 지역문화의 거점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특히 서울에 충무로가 있듯이 인천에는 경동 일대를 '시네마 거리'라고 부를 정도로 영화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20세기 무렵 인천에 설립된 극장들 때문인데요. 인천에는 최초의 근대식 실내 극장인 애관극장을 비롯해 미림극장, 동방극장, 인영극장 등 한때 20여 개의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천 영화예술의 번영을 이끌던 다수의 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애관극장만이 홀로 인천 시네마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과거 애관극장 (출처: 굿모닝 인천 <즐거움앨범 속 인천 이야기> 유동현 저)

▲ 과거 동방극장 (출처: 인천시 블로그)



페이퍼 talk “애관극장”

인천 중구에 위치한 애관극장은 1895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식 극장으로,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 겸 공연장인 '협률사'의 역사를 이은 극장입니다. 2000년대 멀티플렉스 시대 전까지 인천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며, 현재도 5개의 상영관, 최신식 영상기와 디지털 음향시스템, 860여 석의 좌석, 무인발권기 등을 갖추고 있고 영화표 가격이 일반 영화관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색다른 데이트 코스이자 나들이 장소로 그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경자책이런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글을 읽을 수
있다니,

그렇드나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인데,
신기하다!

후후후
이게 바로
위대한 인천의
문명이란 것이다.

뭐라고?

미개한
이세계인
이여

그럼 미개한
이세계인을 위해
이 부분 좀 읽어 줘.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설마 읽을 줄
모르는 거야?

위대한 인천의
문명인이?

어? 그, 그게...

모, 모를 수도
있지!

그냥 얼마 자원봉사할 때
거끔씩 따라왔을 뿐이라
따로 공부한 적은 없다구...!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감사책을
답이? 무슨 옛날
물건들도 많고.

여긴 송암
박두성기념관
이란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한글점자인 훈맹정음
창시한 인천 출신
위인으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기념관을 개관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박두성 선생님의 일생과
유품들을 살펴볼 수 있지.



이런 글자를
만드셨다니,
정말 대단한
원자셨군요!

별명이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시래.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일을
돕거나

직접 책을 읽고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
너무 멋지세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 아들은
왜 저럴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빠 답았나?

투덜 투덜

호호 멋지긴,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것일 뿐이야.

아냐, 짐이
왜 이리 많은 거야?
무슨 숙제라도
하는 건가?

하아?

조금 있으면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이라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잉? 넌 누구냐?

소진이 왔구나.
여기 2층
송암점자도서관
단골 고객님이야.

안녕하세요,
아줌마!

오늘도 책...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엄-
대신에.





더 알아보기

한글점자의 역사



▲ 한글점자 표지 (출처: 문화재청)



▲ 훈맹정음 (출처: 문화재청)



▲ 송암 박두성
(출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시각장애인들은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도록 한 특수한 부호글자인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최초의 한글점자는 1894년에 로제타 홀이라는 미국인이 점 4개를 사용해 만든 '평양점자'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뉴욕 점자를 활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호의 수가 부족하고 한글의 초성과 종성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두성 선생님은 한글의 원리를 활용하여 점 6개를 사용해 초성, 중성, 종성이 완전히 구분되는 체계적이고 쉬운 점자 체계인 '훈맹정음'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여러 차례 보완된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점자이던 엄청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 관련 문화유산 최초로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맹아학교에서 수업하는 송암 박두성 (출처: 인천시청)



페이퍼 talk “훈맹정음”

한글 점자의 기초를 닦은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만들었는데요, 인천시 강화군 출신인 박두성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다가 한글 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조선총독부의 눈을 피해 1920년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점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화

수상한 남자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되다니요!



그런 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인천이라니까-



삼촌은 오랜만에
놀러 와서 왜 아까랑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모로 봐도
인천이 딱이구만!

어딜 봐서요?



뭐 저러는 게
하루 이틀이니.

우선 교통!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재외동포가
가장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이잖아!

말아요,
인천국제공항
가보니까 엄청 크고
쾌적하더라고요.

이... 인정!





뭐야, 왜 따라와.
귀찮다며.

밤에 여자에
혼자 가게
들 순 없잖아.

소중한
내 하이패드가
걸린 일이라고.

ㅋㅋㅋ
하이패드가
여러모로
도와주네.

그런데 골목길이
어두워서 좀
으스스하긴 하다.

응,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

앗!?

하하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미르!

그건 알 거 없고!
너희들, 알 모으고
있지?

아저씬 뭘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더 알아보기

글로벌도시 인천



▲ 영종국제도시-씨사이드파크 (출처: 인천시 중구청)



▲ 송도국제도시-G타워 (출처: 인천시 블로그)

인천은 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을 유치*했습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결정된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함으로써 우수한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에는 세계은행, GCF(녹색기후기금) 등 13개의 국제기구는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잉, BMW 등 15개국 75개의 글로벌기업이 있죠. 또한 미국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물류, 의료, 첨단산업 등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글로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기대해 봅니다.

* 유치: 행사나 사업 등을 이끌어 들이는 것



▲ 청라국제도시-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출처: 인천시 블로그)



페이퍼 talk “재외동포청”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지난 2023년 6월 인천시 송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이민이 시작된 곳인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화

지켜줄게

여기 강화 전동사에는
몇 가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은행나무
전설이야.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 후기에
전동사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은행 열매를 세금으로 내야 했어.



고민 끝에
전동사 노승과 동지승은
용화기로 소문난
백전사의 추송 스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전동사에 온 추송 스님은
열매가 더 많이 열리게
해달라는 3일 기도를
드렸어.



그런데 3일 후
추송 스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지.



이 두 그루의 나무에서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을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비가 그치니
추송 스님은 물론
노승과 동지승이
사라졌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전동사를 구하기 위해
보살이 세 명의 스님으로 변해서
온 거였다고 믿게 되었지.

그리고 실제로
전동사 은행나무는
그때부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동사의 500살 먹은
은행나무의 전설이란다.



저기 근데...
다음 내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지?

햇빛이 눈 부셔서
눈만 감고 있는 거지?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앗, 재민아!
너는 끝까지
듣고 있었구나...!

.....

미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만약 미르가
그 순간 마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전에도 말했지만
이곳에서의 마법 사용은
정말 신중해야 해.



그들이 노리는 건
마물의 알이 아니라
너의 마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마법은 절대,
절대 쓰지 마.

내가 사는 세계에는
그때 나타난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 많아.




하지만 그때처럼
그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에게 맡겨.



재민, 그렇다면
위험해지는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건
상관 없어.



내가 널
지켜줄게.

반드시.



.....

더 알아보기

전등사와 조선왕조실록



▲ 전등사 입구 (출처: 인천시 블로그)



▲ 전등사 전경 (출처: 인천관광공사)

전등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자 호국의 역사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전등사가 있는 강화도는 수도인 서울과 가깝고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피난지로 손꼽히던 곳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였어요.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고려시대 때는 39년간 고려의 수도가 되기도 했죠. 조선시대 때는 강화도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사고*를 만들었는데, 바로 전등사에 위치한 '정족산 사고'입니다. 1660년부터 정족산 사고에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문서를 보관했다고 해요. 국권 침탈 이후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서울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죠. 정족산 사고 역시 여러 번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건물의 형태가 사라져 버렸지만 1998년 재현되었습니다.

* 사고(史庫):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



▲ 정족산사고지 (출처: 인천관광공사)



▲ 조선왕조실록 (출처: 문화재청)



페이퍼 talk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 불경을 집대성한 것으로, 경판의 수가 8만여 장에 이르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입니다. 1251년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뛰어난 목판 인쇄술과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지만, 강화도 선원사에 팔만대장경 제작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3화

레벨업



다시 옷 갈아입음



1891년 영국·미국·독일·청·일본의 대표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고 클럽을 조직하였고,

이 모임을 가진 곳이 바로 제물포구학부야.

당시 인천에는 외국인들의 공동 거주지였던 조계지가 있었는데,

제물포구학부에서는 조계지 안의 문제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 외교전이 비밀스럽게 펼쳐지곤 했었대.



* 조계지: 개항장에 설정한 외국인 전용 거주지역 (출처: 인천시 블로그)



재민! 여길 잘 아는구나!

아빠랑 전에 와본 적이 있었거든.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 건축가 사바틴이라는 사람인데, 사바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도 설계했대.



제물포구학부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와 철학, 예술에 관해 논하는 장소였어.

그래서 지금도 그 취지를 살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대.



제물포구학부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재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게다가 이곳은
책도 많고 조용해서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겠는걸?



그런데,
재민.

우리 알 찾으러
온 거잖아... 찾아야지,
마물의 알...



맞다, 그렇지,
하하하::

하아... 결국
제물포구락부는
허탕인가.



근처에 또 다른
후보지가 있어.
거기에 가보자.



대물호텔?

응! 바로
이 호텔이야!

여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이 아냐.
호캉스는 못한다고.



쳇...

그런데, 미르...



응?



헤이, 페이퍼-
대불호텔에
대해 알려줘-

네,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말씀이시죠?



인천의 개항 후,
인천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서울로
가기 전에 인천에서
하루를 묵어야만 했고

아들에게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본인
호리 히사타로가 백돌초
3층 건물의 서양식 호텔을
세웠습니다.

(출처: 인천시 블로그)



대불호텔은 처음부터
외국인들을 상대로 했기에
영어 용대는 기본이었으며,

한국 최초로
커피를 팔기도
했습니다.



오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에 최초로
커피를 판매한 곳이라니.

몰랐지만
꽤나 의미가
있는 곳이었네.



재민! 전시관이러더니
진짜로 옛날 호텔 모습을
그대로 전시해놨나 봐!

여기도 내가
사는 그랜드나의
모습이랑 비슷해!



이 찻잔
너무 예쁘다아~!
어?



더 알아보기

대불호텔전시관과 중구생활사전시관



▲ 대불호텔전시관 (출처: 인천시 중구청)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은 개항 초기 서울에 가기 위해 인천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하지만 1899년 경인철도가 생기면서 인천과 서울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자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북경요리 전문점 '중화루'로 탈바꿈하여 50여 년 동안 운영되기도 했지요. 그러다 지난 2018년, 대불호텔 터를 활용해 대불호텔의 옛 모습을 재현해놓은 '대불호텔전시관'을,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1960~1970년대 인천 중구의 생활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구생활사전시관'을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인천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구 개항장으로 박물관 투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 중구생활사전시관 (출처: 인천시 중구청)

▲ 제물포구락부 (출처: 인천관광공사)



페이퍼 talk “제물포구락부”

제물포구락부는 '제물포 정략'이라는 말이 유래될 만큼 열강들의 이권 다툼과 외교적인 활동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사교 클럽이었으나 외교의 전초기지였던 셈이었죠. 개항도시 인천의 특징이 담긴 제물포구락부 건물은 과거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원 등으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그 역사와 문화를 잇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최근에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24화

붉은노을

오늘도 대불호텔에서
알 하나 회수 성공했고-
그릴 집에 갈까?



그래.



전방 1킬로미터
이내에 마을의 알이
검색되었습니다.

재민! 근처에
더 있대! 마저
찾고 가자!

어디 보자. 여기서
전방 1킬로미터면...
이쪽인데...



저긴 자유공원
이잖아.



자유공원은 1888년
인천시 중구 용동산에 조성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입니다.



오호 여기도
우리나라 최초구나.

역시 인천은
최초의 도시!



설립 당시 만국공원이라고도 불린 각국공원은 서공원, 야마테공원 등으로 불리다가 해방 이후 만국공원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1957년에는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유공원에는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비롯해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인천 학도 의용군 기념비 등 다양한 역사유적이 있습니다.

어?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 이라면...!

응, 맞아. 우리 전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갔었잖아.



재민! 여기 봐봐! 작고 귀여운 팔미도 등대 모형도 있어!

ㅋㅋㅋ 포토존으로 딱이네.



재민! 야까 먹다 남은 과자 있지? 지금 꺼내 줄래?



응? 잠시만.

어? 비둘기잖아?



헤헤... 잘 먹는다.
많이 먹으렴-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건데...



※ 비둘기에게 일부로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어? 비둘기가
자길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따라가 보자.

이 비석은...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비석이야.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연해주의 '대한민국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 등이 있었습니다.



(출처: 인천시 블로그)

이들은 하나의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고,
1919년 9월 11일 상하이에 거점을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명칭과 위치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따랐지만
그 정통성은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한성정부를 계승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인천에서 있었다니...
천하 놀랐어.

그리고 그 한성정부 수립을 위해
전국 13도 대표대회가 개최된 곳이
바로 인천만국공원,
현재의 자유공원입니다.



재민!





뭐야,
왜 또 갑자기
두근거리는데!

두근



재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어디 아파?

가, 가까이
오지말라구...!



땀도 많이
나잖아! 진짜
괜찮아?

나, 나 먼저
갈게!!!

앗, 재민,
같이 가~!

더 알아보기

자유공원



▲ 자유공원 광장 (출처: 인천시 중구청)



▲ 맥아더 장군 동상과 자유공원 (출처: 굿모닝 인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미국,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조계 안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각국공원'으로 불리다가 점차 '여러 나라'라는 의미의 '만국공원'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로 인해 1914년 각국 조계가 사라지며 외국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공원이 자유공원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이 끝나고 여기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세웠던 1957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인천시민들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공간이자 매년 4월이 되면 전국에서 벚꽃축제를 즐기러 오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 과거 각국공원 (출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 각국공원의 테니스장 (출처: 인천시 블로그)

미리! 미리!
이리 와와!

후후후...
샬리아,
내일 날씨
알려줘~

재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네, 인천의
내일 날씨 말씀이시죠?
내일은 하루 종일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

우와, 재민!
너도 페이퍼가
있었어?

후후. 이게 바로
시스피커라는 거다.

우리 세계에서
페이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럼 페이퍼처럼
야법도 쓸 수 있어?

그런 건 될 리가
없잖아.;

샬리아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 볼까?

샬리아,
그랜드나에
대해 알려줘~



반도체는 2023년 기준
수출 품목 1위인데,
특히 시스템반도체가
인천시 전체 수출액의
23.9%를 담당하고,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 수출액의 약 40.1%를
인천시가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천에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이 있고,



공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
글로벌기업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는 물론 수도권에 입지하여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야.

와야,
엄청나네요.

오래된 지역들을
주로 다녀서
인천에 그런 면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나저나,
지금까지 알들은
몇 개나 모았니?



어... 지금까지
15개요.

많이 모았네.
그럼 앞으로 몇 개나
남은 거니?



거의 다
모았을걸요?

헤이, 페이퍼-



네, 마물의 알
말씀이시죠?
현재 탐색이 가능한
미최수 알은



앞으로
남은 알은 3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까지 어떻게든
미르를 그놈으로부터
지켜내야 해!



그런데 남은 알을
다 모으고 나면...

넌 할 수 있어,
재민!



미르를
지키는 거야!



미르는 원래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겠지?



.....

더 알아보기

인천의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



▲ 미래차 (출처: 인천시청)

인천은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유명하죠. 이외에도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 등이 미래 인천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자동차산업을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세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운송·물류 중심 도시인 만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산업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인 도심항공교통(UAM),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를 뜻하는 항공정비산업(MRO), 안전·환경·시설물관리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 등 항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인천의 혁신과 도약을 기대해주세요.

* 커넥티드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자동차



▲ 영종도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 (출처: 인천시청)



▲ 드론 활용 선박 화재 진압 실증 (출처: 인천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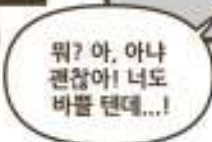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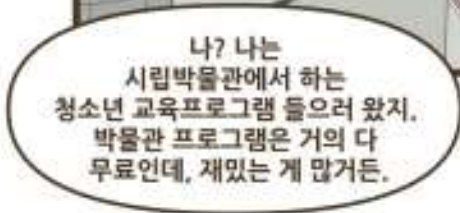
페이퍼 talk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바이오, 모빌리티 등과 함께 인천시의 대표적인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기계와 금속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6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야봐,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여기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박물관으로,

인천 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개항 이후 근대화 등
인천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



근데 미르는
어디서 왔어?

외국에 오래 살다
왔다면서 한국말
잘 하네.



전 그람드나에서...

아, 미르는
라티오 그람드나스라는
나라에서 왔어!



라티오 그람드나스?
그런 나라가 있었나?

아프리카 쪽에 있는
뭐냐 작은 나라라
안 유명해! 히하하!



6·25전쟁이 나자 박물관장과 직원들이
박물관 아래 시장관사 방공호에
유물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냈다.

아무튼, 시립박물관은
처음에 세창양행 사택에서
문을 열었는데.

(출처: 인천시향)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함포사격으로 인해
박물관 건물이 전부 파괴되어



1953년
제주포구박물관 건물로
이전하여 다시
개관했다고 해.

(출처: 인천시청)

아, 제주도
구락부 같아요!
며칠 전에 다녀 왔어!



진짜? 너 정말
인천 역사에
전심이구나!

어머, 인천시립박물관은
해방 후와 6·25전쟁으로
큰 혼란과 아픔이 있었던
시기에



인천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유식과 교육의 장이자
인천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대.

그리고 1990년
지금의 자리로
신축 이전을 하였고



2006년에 리모델링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대.

어쩐지 건물이
멋지더라구요!

근데 미르, 너
입술 색 정말 예쁘다.
틴트 뭐 써?



틴트가 뭐가요?
먹는 건가요?



몰이 엄청 신났네.
산났어.

확실히
여자들이리라
더 잘 통하나
보네.



...아쩌면

미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을 지도...



?

...그때, 어찌 됐든 간에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게 미르를 위한 거니까.



알은 이따가
하은이랑 헤어지고
깜짝 선물로 보여줘야지,
엄청 기뻐하겠지? **



재민아,
미르 나랑 저녁 먹고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집으로 보낼게.

뭐? 잠깐만...!
나만 빼고
단 둘이?!

재민오빠,
이따 봐요~!



배신감을 느끼는 재민이였어요

더 알아보기

인천시립박물관과 이경성 초대 관장



▲ 인천시립박물관 (출처: 인천관광공사)



▲ 인천시립박물관 내부 (출처: 인천관광공사)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 출신의 한국 1세대 미술평론가인 '석남 이경성 선생'의 주도로,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개관했습니다. 개관 당시의 전시품은 모두 364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28세의 젊은 미술학도였던 이경성 선생은 일제에 의해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으고, 미군정과 협의를 통해 부평 조병창*에 버려져 있던 중국 유물을 트럭에 실어오거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족박물관(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유물을 빌려와 초기 시립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일찍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인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게 된 것은 이경성 관장의 값진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병창: 무기를 만드는 공장



▲ 개관 당시의 시립박물관 (출처: 굿모닝인천)



▲ 초대관장 이경성 (출처: 굿모닝인천)



페이퍼 talk “최초의 공립박물관”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옛 세창양행 사택 자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국립박물관이나 사립 박물관과 달리, 해당 지역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자 지자체에서 직접 박물관을 운영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었죠. 일제강점기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 수집가들이 꽤 많은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1945년 광복을 맞이하자 인천의 문화계 인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밀반출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를 제지하고 문화재를 보관, 전시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천시립박물관의 건립이 추진되었고 1946년 개관하였습니다.

27화

재민의 고민





이건 지하철이라고 해.

버스랑은 다르게 여러 개의 차를 길게 붙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그럼 혹시 이것도 인천이 최초인가?

경인철도는 1899년 9월 18일 인천역과 노량진 사이 임시운행을 시작으로



그런가? 글썄, 그건 나도 잘...

네, 1899년에 개통된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철도 말씀하시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인철도 덕분에 우마차 등으로 12시간 걸리던 육로와 인천-용산 간 뱃길에 의존하던 인천과 서울 간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한때 호황을 누리던 인천항 부근의 숙박업소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 최초 인천 화교 100선》)

저번에 갔었던 대불호텔도
이런 이유로 문을 닫았겠구나,
바로 서울로 갈 수 있으니...



아...
그렇겠다:

한편, 인천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종점역이자
수인·분당선의
중점역으로,



경인선이 개통된 1899년
최초로 영업을 시작하여
한국의 모든 철도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중점역입니다.



한국 최초의 증기기관차인
'모감1호'는 현재
동인천역 복광장에
실물크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와, 인천이 빠르게
철도를 개통해서
발전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편하고
빠르게 다닐 수가
있는 거구나.



역시 인천은
최초의 도시!

그 맨트 오랜만에
듣네 ㅋㅋ



.....



남은 말은 2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말을 다 모으면
미르는 그렇드나로
돌아갈 거야.



어떡하지? 가기 전에
고객이라도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하나?



그럼 이제 미르를
뭇 만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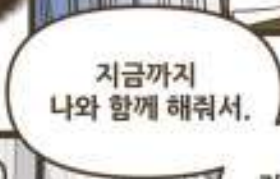
근데 고백한다 해서
미르가 안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



오아 모르겠다!
어떡해야 하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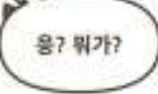
거절 당하면
더 어색해질 테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재민. 고마워.



응? 뭐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가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내 작은 감사의 표시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다른 거 하나도
신경쓰지 말고
신나게 즐기는 거야!



...



그래, 오늘은 미르가
특별히 마련한 이벤트를
감시 머리 비우고
즐겁게 놀다 오자!



미르!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렸잖아!

늦어서 미안해요,
언니!



뭐야, 신하은!
넌 왜...!!

다음화도찬밥신세확정...?

더 알아보기

수원-인천을 잇는 수인선의 아픈 역사



▲ 과거 소래철교와 협궤열차 (출처: 인천시청)



▲ 현재 소래철교 모습 (출처: 인천시 블로그)

인천의 경인선 이후 생긴 수인선에 대해 아시나요? 수인선은 1937년 일제의 물자 수탈 목적으로 쌀이나 소금 등을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경인선과 달리, 수인선은 인천과 수원을 운행하던 철도였습니다. 레일 사이의 간격이 일반철도보다 좁은 협궤철도였기 때문에, 수인선은 '꼬마열차'라고 불렸어요. 수인선은 일제의 수탈과 같은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교통수단이 부족했던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며, 지금의 소래포구에는 '(구)소래철교'가 남아있어 수인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수인선 모습과 수인선 협궤열차 풍경 (출처: 인천시 블로그)



페이퍼 talk “인천도시철도”

경인선은 1899년 한국 최초로 개통된 철도로, 당시 경인선은 제물포와 노량진 사이를 운행하였습니다. 인천-서울 간 이동뿐 아니라 인천 내에서의 교통 편의를 늘리기 위해 인천시는 다양한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은 인천시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이며, 인천 2호선은 2016년 운영을 시작한 무인운전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7호선의 인천~부천 구간도 인천도시철도로서 인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8화 고백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온 걸 환영해!

매년 7-8월에 개최되고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3일간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을 비롯, 신진 아티스트들의 무대까지 화려한 라인업이 이어지지!

이런 엄청난 축제가 매년 인천에서 열린다니, 정말 인천은 멋진 것 같아요!

어때? 오길 잘했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06년부터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락 페스티벌 하나야!



또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에서 친환경 부문과 머천다이즈 부문으로 2년 연속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구!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 세계축제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원래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비가 쏟아지는 날이
많았거든.



7~8월에
개최되니까
말이야.





뜨거워!
피부가 완전히
익겠어!



이래서 비가 안 와도
우산이 필수야.

그렇네요, 언니.



신나게 놀다 보니
벌써 깜깜해졌어.



조금 있으면
오늘 공연 일정도
끝나.

그럼 끝나고
가면 되겠다.
너도 갈 거지?



아니, 난 저기에
텐트쳐놨어.

마지막 날까지
3일간 여기서
잘 거임.

헉, 그 정도로
진심인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정말 부지런하잖아.

부지런하다기 보단
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래.



주변을 보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낭비?

고민하고 망설이다
시간을 다 보내는 걸
 많이 봤거든.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쓸 밖에
조금이라도 일찍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남는 장사 아닐까?

난 후회하더라도
나중에 안 해서
후회하는 것 보단

하지만
고민없이 했다가
후회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뿐인 인생이잖아.

...!!





덕분에 답을
알았어!



후후후
찾았다!

내가 포기한 줄
알았지?

난 당한 건 반드시
갚아주는 놈이래구.
ㅋㅋㅋ



더 알아보기

인천의 다양한 축제들



▲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출처: 인천관광공사)



▲ 부평풍물대축제 (출처: 인천시 부평구청)

인천에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외에도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축제, 강화고려산진달래축제,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등이 유명하죠. 그중 소래포구축제는 2001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되고 있는 해양생태축제로,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입니다. 소래포구 대표 수산물인 대하와 꽃게를 에어풀에서 직접 잡아보는 대하·꽃게 낚시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그밖에도 다양한 체험부스와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인천의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 특별하고 색다른 추억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소래포구축제 (출처: 인천시 남동구청)



▲ 강화고려산진달래축제 (출처: 인천시 강화군청)



페이퍼 talk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펜타포트란 인천의 도시발전 전략을 상징하는 5개의 항구를 의미하며, 인천항, 인천공항, 정보포트, 비즈니스포트, 레저포트를 뜻합니다. 2006년부터 매년 7~8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여 명에 이르는 관람객의 환호 속에서 약 686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9화

위기의 순간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굴해변으로, 매우 작고 균일한 크기의 모래송 덕분에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서



이탈리아 나폴리 해변과 더불어 세계에서 단 두 곳뿐인 천연비행강이며, 한국전쟁부터 1960년대까지 국군과 마군이 활주로로 이용하여 1960년대에 '백령도 국제공항'이라는 현판이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네? 모래사장인데 우리를 발자국은 남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그러게, 완전 신기하다!

그리고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두무진이라 불리우는 저곳은



아름답고 기묘한 암석들이 펼쳐져 있어 서해의 해금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퇴적 당시의 퇴적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10억 년 전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경이로운 지역입니다.

10... 10억 년?! 인천에도 그렇게 오래된 곳이 있었던 말야?



헐, 나도 몰랐어.

앗, 재민! 저기 봐 봐!
천연기념물인
물범 가족도 있어!

자, 잠깐!
알도 갖고
있잖아!



마치 우리에게
알을 전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

고마워, 예뵤야.
정말 고마워!



드디어...
드디어...!

마물의 알을
전부 다 회수했다!
미션 컴플릿!!!



축하해!
미르,

고마워,
이게 다 재민
덕분이야!



하하하! 나를 위해
여기까지 와서
애써주다니, 내가
더 고마운걸?



내가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았나?

다치기 전에
총계 말고 할 때
알들을 내게
넘겨!



남 쓰러트리지 않는 한
절대 알을 가져갈 순
없을 거다!

재민...!

아니, 당신은?!







나도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너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마구-



머걸 너희들은
마법이라고 하던가?
ㅋㅋㅋㅋ



당론 알들은
내가 잘 가져간다.
그동안 모으느라
고생했어-

어... 찬채...!



쫘쫘,
다른 어른이 말아야.
애들 물건을 강제로
뺏고 그러면 안 되지-

!!



뭐야, 당신은?

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백령도의
살아있는 전설
이라고나 할까.



※ 12화 살아있는 전설 참고

더 알아보기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



▲ 인천의 다양한 섬들 (출처: 인천시 웅진군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인천은 40개의 유인도와 128개의 무인도, 총 168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그야말로 서해바다가 선물해 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인천에는 백령도만큼 아름다운 섬이 또 있는데, 바로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에 위치한 '선재도'입니다. 선재도의 목적은 2012년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입니다. 작은 무인도인 목적은 밀물 때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다가 썰물 때 1km 길이의 모랫길이 열린다고 해요. 하루에 두 번 열리는 모랫길을 통해 목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신비로운 곳이죠.



▲ 선재도 목적 (출처: 인천시 웅진군청)



페이퍼 talk “백령도”

인천시 웅진군에 속한 백령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자 국내에서 8번째로 큰 섬입니다. 까나리, 돌미역, 전복 등 수산물이 풍부하며, 국내 유일의 물범 서식지인 물개바위, 세계에 단 2곳 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인 사곶해안,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가 보이는 심청각, 공돌해안과 현무암 분포지 등 볼거리도 많은 백령도! 백령도로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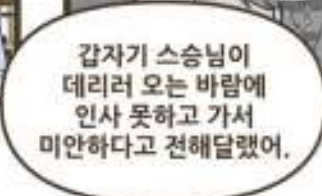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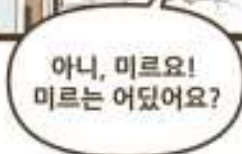
30화

에필로그









뭐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인데.



최소한 얼굴 보고
제대로 인사는
하고 갔어야지...!



서운했다.
그리고 조금
화도 났다.

딱 자기 목적
다 이루니까
바로 떠난 거구나.

편히 마음을
전할 뻔했잖아.
차라리 다행어...!



원래 그런
아이였어.
몰랐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점차 미르의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고
있을 때쯤



어? 미르한테서
온 거잖아? 이게
어떻게 왔지?





덕분에 나 큰 힘이 되었어.

그래서 내 세계로 돌아가서도 재민과 마법도시 인천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앞으로 남은 일
최수까지 얼마나 더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여정도
잘 부탁할게.

그럼 안녕,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해.

재민의 <첫!>
여자친구 미르가.



난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미르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나도 너와
함께 한 이곳,
인천을 영원히
기억할게.



안녕, 미르...

더 알아보기

미래의 인천



▲ 송도국제도시 전경 (출처: 인천시청)



▲ 인천국제공항 (출처: 인천시청)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도시, 인천.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 인천 최고를 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었다면, 이제 제3의 개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쓰게 될 최초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최고가 될 인천의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 송도 센트럴파크 (출처: 인천시청)



▲ 인천대항 재개발 조감도 (출처: 인천시청)

주요키워드



구분	소제목	키워드	페이지
2화	만남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14
3화	걱정 안 해도 돼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22
4화	작가의 사심	차이나타운, 인천 먹거리, 짜장면박물관	28
5화	역사가 바뀔 뻔한	최초의 시외전화, 치하포사건, 최초의 공중전화	34
6화	드러난 진실	저어새, 금개구리, 깃대종	40
7화	재민의 목적	웃터골 운동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문학경기장	46
8화	1개만 더 있었어도	원통이고개, 경인아라뱃길	52
9화	보고 싶어	담동성당,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	58
10화	남자친구	인천우체국	66
11화	그 마법을 쓰자	경인고속도로	72
12화	살아있는 전설	부평 지하도상가, 동인천 지하도상가	78
13화	어르신의 사정	주안염전, 소래염전, 소래습지생태공원	84
14화	마물의 알 구출작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팔미도등대	90
15화	글로벌 슈퍼스타	류현진 야구거리, 세창양행 고백, 세창양행 주택, 광고	96
16화	대단한 사람	인천창영초, 인천공립보통학교, 향교, 서원	102
17화	새치기	홍예문	110
18화	미르의 과거	인천영화초, 내리교회, 성교회 내동교회, 강화성당	116
19화	두근두근	애관극장, 인천의 시네마거리	122
20화	다가오는 위기	훈맹정음, 송암박두성, 송암박두성기념관	128



21화	수상한 남자	재외동포청 유치, 글로벌도시 인천	134
22화	지켜줄게	강화도 전등사, 정족산사고지, 선원사	140
23화	레벨업	대불호텔, 제물포구락부, 대불호텔전시관	146
24화	붉은노을	자유공원, 전국13도 대표대회, 맥아더 동상	152
25화	만반의 준비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158
26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인천시립박물관, 이경성 초대 관장	164
27화	재민의 고민	경인철도, 인천도시철도, 수인선	170
28화	고백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의 다양한 축제들	176
29화	위기의 순간	백령도,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	182



와라! 인천 마법의 세계로

발행일 | 2024년 5월
발간등록번호 | 54-6280000-000679-01
발행처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기획·제작 | 인천연구원
자료감수 | 인천시립박물관 배성수 유물관리부장
부평역사박물관 손민환 학예연구사
글·그림 | 지강민
편집·인쇄 | (주)플라잉피그

ISBN 979-11-6870-219-6 (47980)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에 있습니다.